

아시아 전역 R&D 허브로 나선다

글 | 경제호 _ 김벌리-클라크 아시아 이노베이션센터 연구소장 jkyung@kcc.com

김벌리-클라크 아시아 이노베이션센터(ICA)는 건강, 위생용품 회사인 김벌리-클라크 본사 중앙연구소 중의 하나로서 2006년 한국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난 2월에 연구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하여 3월부터 경기도 기흥에 있는 유한양행 연구소 부지 내의 새 연구소 건물에서 본격적인 연구 개발 활동을 시작한 글로벌 R&D 센터다.

김벌리-클라크도 이러한 R&D 글로벌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5년초부터 본격적인 새로운 글로벌 이노베이션센터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먼저 세계 전지역의 과학기술 수준과 연구 인력을 조사하여 타깃 지역을 아시아로 선택하였다. 중국, 인도, 싱가포르, 타이완, 한국, 일본, 이스라엘 등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비교 평가되었다.

중국 등 제치고 글로벌 R&D 센터 최적격지로 선정

김벌리-클라크는 1872년에 설립되어 지난 135년 동안 건강·위생용품에 주력해 온 세계적인 기업으로 크리빅스, 하기스, 코텍스 등의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으며 2006년 매출액이 167억 달러를 기록하여 '포춘' 지 선정 500대 기업 중 140위에 랭크되고 있다. 또한 김벌리-클라크는 20년 이상 포춘지가 발표하는 가장 존경 받는 기업으로 선정되어 왔으며, 세계적 석학인 짐 콜린스 교수의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저서에서 11개의 위대한 기업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이미 1971년부터 김벌리-클라크와 유한양행의 합자회사인 유한김벌리를 통해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회사의 핵심 기능 중의 하나인 R&D를 글로벌화하는 작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유럽에서만 가능했던 R&D 활동이 경제와 인적 자원의 수준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고급 연구인력이 풍부한 아시아 지역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R&D를 글로벌화하는 지역으로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임금이 저렴한 중국과 인도를 선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연구개발의 환경과 조건에 각자의 장단점을 갖고 있었다. 좀 더 정밀한 비교 조사를 위해 직접 한 나라씩 방문하여 얻어진 정보들은 간접적으로 수집되었던 지식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숫자로 나타내기 어려운 기밀유지, 회사 인지도, 고용 문화, 정부기관의 협조 등의 상대적·주관적인 면이 평균 임금, 이공계 졸업생 수 등의 절대적·객관적인 면과 다를 바 없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건 외에도, 김벌리-클라크는 정부의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었다. 각국 방문 활동 중 KOTRA, 산자부, 경기도 등 한국 중앙·지방 정부 기관들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접하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소개받게 되었다. 결국 중국, 인도, 한국을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하여, 12가지 선정기준으로 회사내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12가지 선정기준은 혁신력, 의료 제품 개발에 대한 규제, 시장의 크기, 연구인력 규모, 채용 가능성, 채용인력의 유지, 연구인력 유치의 경쟁력, 지적 재산권 보호, 전략적 위치, 언어와 문화, 인건비 및 운영비용 수준, 정부의 재정적인 협력 등이었다.

그 결과 한국이 김벌리-클라크 최초의 미국 외 지역의 글로벌 R&D 센터 최적격지라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5년간 4천만 달러 투자, 차세대 진단 시스템 등 개발

김벌리-클라크가 글로벌 R&D센터의 설립지역으로 한국을 선택하게 된 몇 가지 다른 중요한 이유가 존재한다. 한국은 규모가 작은 단점이 있지만 연구인력과 인프라가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기술 융합을 수행하기가 용이하며,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일본과 중국에 가깝고, 김벌리-클라크에 통찰력을 줄 수 있는 감각 높은 소비자들과 신제품 수용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유한김벌리의 높은 명성이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산자부, KOTRA, 경기도의 최고위 지도자들과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유치·협상 활동과 매력적인 인센티브 프로그램들도 한국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김벌리-클라크 아시아 이노베이션센터의 개업 행사는 3월 2일 경기도 기흥에 소재한 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례적으로 김벌리-클라크의 CEO인 탐 포크 회장이 여러 명의 사장급과 부사장급 인사들과 함께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연구소 발족을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는 코트라 홍기화 사장, 경기도 김문수 지사, 유한김벌리 문국현 사장, 유한양행 차준근 사장 등 국내 저명인사들이 다수 참석하여 ICA의 첫출발을 격려했다.

ICA는 1천580평 규모의 연구소로, 향후 5년간 약 4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연구인력 규모는 석·박사급 80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 ICA는 아시아지역연구소가 아닌 김벌리-클라크 본사 중앙연구기관의 하나로서 기존에 미국에서만 수행되던 김벌리-클라크 글로벌 R&D 기능을 미국에 있는 자매부서인 북대서양 이노베이션센터(ICNA)와 함께 수행하며, 차세대 진단 시스템, 혁신적 생활환경 위생기술, 첨단 의료기기용 고기능성 바이오 재료 및 혁신적 약물 전달시스템을 이용한 건강 위생제품의 연구 개발과 함께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전역의 R&D 허브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한국에 처음으로 생긴 외국 R&D 센터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낮은 인지도로 인한 우수연구인력 확보가 힘든 것이지만, 유한김벌리의 한국내에서의 높은 명성과 인지도의 영향으로, ICA는 올해초에는 15명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1차로 확보하였고, 5월 중에 2차 공개모집을 성공적으로 마감하였다.

ICA의 연구원들은 미국에 있는 ICNA의 연구원들과 같은 직급 체계를 갖고 있으며, 본사의 모든 기술·시장 정보들을 동일하게 활용하고 있다. 연구개발 과제의 포트폴리오 관리도 ICA와 ICNA가 같이 하고 있어, ICA는 모든 면에서 미국에 있는 ICNA와 함께 명실상부한 본사 중앙연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화학과 졸업 후 브라운대학교에서 유기화학 박사학위와 데이턴 대학에서 MBA를 수료했으며, 미국 오하이오주 소재 애슐랜드 케미컬에서 연구원을 지냈다.